

수영장 옆 갤러리



색다른 만남에 시민들은 ‘good’

북구건강복지타운
‘미래갤러리’

“건강도 챙기고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열마나 좋아요.” “가까운 곳에 갤러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여기에서 난생 처음 화가들의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수영장 옆 갤러리’ 미래갤러리가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지하 1층 로비에 문을 연 미래갤러리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미래갤러리는 지난 3월 수영장과 갤러리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문을 열었다. 다소 생소한 만남이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박’이었다. 단순히 수영과 웰스를 즐기고 가던 시민들은 매일 같이 갤러리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갤러리를 쉼터 삼아 휴식을 취하는 등 쉽사리 수영장을 떠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미술 전시회를 접한 시민들도 점차 ‘그림’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었다.

미래갤러리가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 우산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은 2000여명에 달하는 수영장 회원들에게 문화공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전시를 통해 주민들과 문화예술의 감성적 사고를 공유하면서 회화적 공간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이름도 미래갤러리로 지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미래갤러리의 매력이다. 우산수영장 내에서 다양한 문화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또 많은 회원은 지역 작가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간 자체도 재미있다. 로비를 들어서면 ‘L’자 형태의 전시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갤러리 유리창 너머 보이는 수영장 모습이 이색적인 재미를 준다. 시민들의 작품 관람을 돕기 위해 은은하게 쏠아지는 조명은 한층 분위기를 더한다. 갤러리 곳곳에 놓인 다양한 모양의 수석들도 다른 갤러리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실제 미래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작가들도 “매력 있는 공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래갤러리는 그동안 다양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3~4월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연 개관전에는 김종일, 우제길, 최재창, 이규환, 홍성아, 윤병화, 송연식, 임수영, 백예경씨 등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이어 박구환, 주성범, 한은혜씨 등이 초대받아 작품을 걸었고, 지난 7월에는 전병문씨가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바자회 형식의 전시를 열기도 했다.

오는 31일까지는 추상화가 김영희씨의 전시가 열린다. 김씨는 어린 시절 산, 사계, 달, 별 등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끄집어내 화폭에 담은 ‘기억 속으로’ 시리즈와 그리스, 파리 그리고 국내 곳곳을 여행하면서 본 풍경들을 마음의 색으로 표현한 ‘추억여행’ 시리즈 등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67-885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영희 작 ‘기억속으로’



광복절에 체 게바라 인쇄된 옷 입고 축하공연 논란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징계 여부 주목

광주시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인쇄된 옷을 입고 축하공연을 벌인 책임을 물어 합창단 지휘자(37·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출간된 평전

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물이 그려진 의상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국가 기념행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합창단 지휘자를 상대로 경위조

사를 거쳐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외적으로 광주의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공연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 제6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프로그램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옷을 입고 공연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전홍범 광주보훈청장은 자리에 함께 있던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국가 기념행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의 자체 조사에서 합창단 지휘자는 “티셔츠는 지난 6월 정기공연 때 단체로 구입한 것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별도로 티셔츠를 마련하기 어려워 합창단에 그냥 입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중국에서 3대 작곡가로 추앙받는 정윤성 선생을 기리는 음악제가 광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음에도 체 게바라 의상을 크게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평화를 위하여’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에 베트남 당낫민 감독

제3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에 베트남 당낫민(75·Dang Nhat Minh) 감독이 선정됐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당낫민 감독은 베트남의 열악한 영화제작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전을 주제로 전쟁의 잔혹성과 참상을 고발하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인류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당낫민 감독은 베트남 전쟁 등 전

쟁시대의 비극이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의 모순들을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베트남 영화제작자협회 총서기를 역임하고, 지난 2007년 베트남 정부가 주는 호치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10월이 오면’(1984), ‘향수’(1995), ‘전장 속의 일기’(2009) 등이 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낫민 감독



‘전장 속의 일기’

21일 ‘광주 문화포럼’ 두번째 강좌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 이용우)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 문화포럼’ 두번째 강좌가 21일 오후 2시~4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마리아 린드(Maria Lind·사진) 스톡홀름 아트센터 관장이 강사로 나서 ‘오늘날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리아 린드 관장은 스톡홀름 외곽 주택지구 한 복판에 위치한 미술센터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일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청중들과 큐레이팅에 관한 견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예술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마리아 린드 관장은 2002년 상파울루비엔날레 스웨덴 커미셔너, 뉴욕 바드칼리지 대학원 큐레이터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 강좌는 9월25일 오후 2시 ‘디자인, 거시기 머시기’(강사 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를 주제로 열린다. 문의 062-608-424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KJBH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hong79.com
홍스페이스
☎ 1899-0240

던롭침대 | 세계최초 라텍스침대 코잔드침대 | 온열, 안마침대